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복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전통 메이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장 연 주

한국 전통 메이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

박복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장 연 주

인 준 서

장연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논문개요

화장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였으나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 확대하는 역사적 발달 과정 속에서 한 사회의 문화 양식을 대변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변화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 내부적인 요인은 발명이나 발견과 같이 한 문화 내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며 외부적인 요인은 문화 전파나 문화 접변과 같이 다른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문화는 단순히 그 민족 고유의 성질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처한 자연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끊임없는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산물이다.

고려는 신라 말에 왕건이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세운 왕조로 고려시대는 중세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와 근세를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역사의 교량적 위치에 있는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문화적 배경과 고려시대에 영향을 미친 주변국과의 교류를 살펴 보면서 고려 시대를 특징짓는 화장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들의 화장에 큰 영향을 준 기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고려시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상호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 송(宋)과 원(元)의 외교적 관계와 각 나라 여성의 화장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고려시대 여성 화장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고려사(高麗

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화장에 관한 문헌 기록과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문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고려시대 고분벽화, 불화, 인물화에 묘사된 여성의 모습을 분석하여 화장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송(宋)·원(元)대 유물에 묘사된 여성의 화장을 고려시대 유물과 비교하여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 고려의 여성 화장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분석하여 이후 전개되는 화장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에는 기녀를 중심으로 분대(粉黛)화장이 등장한다. 분을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었으며 연지로 입술은 붉게 하여 화려한 화장을 하였으며 문헌 기록에도 분대(粉黛)와 야용(冶容)등으로 진한 화장을 의미하는 단어들 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송(宋)·원(元)의 영향으로 눈썹 형태와 길이, 입술 연지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고려 시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화장에 관한 연구는 고려시대 화장 문화의 성격을 새로이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전통 화장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재해석이 이루어져 각 시대의 화장 문화 특색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역사적 배경	4
1. 고려시대의 여성	4
1)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4
2) 고려시대 기녀	7
2. 송(宋)대 시대적 배경과 여성 화장의 특징	10
1) 고려와 송의 대외 관계	10
2) 송대 여성의 화장 문화	12
3. 원(元)대 시대적 배경과 여성 화장의 특징	14
1) 고려와 원의 대외 관계	14
2) 원대 여성의 화장 문화	17
III. 고려시대 여성 화장의 특성 및 분석	21
1. 문헌에 기록된 여성의 화장	21
2. 유물에 묘사된 여성의 화장	31
IV. 결론	4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문헌에 기록된 여성의 화장	30
----------------------------	----

그림 목 차

〈그림 1〉 河南禹縣白沙宋墓出土壁畫	19
〈그림 2〉 山西太原晉祠聖母殿彩塑	19
〈그림 3〉 觀世音菩薩像供養人絹畫	19
〈그림 4〉 赤峯元寶山出土 壁畫	19
〈그림 5〉 山西省共洞廣勝寺	20
〈그림 6〉 蒙古帝王家居畫	20
〈그림 7〉 山西永樂宮三清殿畫	20
〈그림 8〉 고법리 고분 벽화	38
〈그림 9〉 고법리 고분 벽화	38
〈그림 10〉 둔마리 고분 벽화	38
〈그림 11〉 수월관음도	38
〈그림 12〉 관경변상도	39
〈그림 13〉 관경서분변상도	39
〈그림 14〉 관경서분변상도	39
〈그림 15〉 미륵하생경변상도	39
〈그림 16〉 미륵하생경변상도	40
〈그림 17〉 미륵하생경변상도	40
〈그림 18〉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40
〈그림 19〉 조반부인 초상	40
〈그림 20〉 하연부인 초상	41
〈그림 21〉 쌍영총 동벽 인물도	41
〈그림 22〉 수산리 벽화 여인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고려시대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50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존재하며 고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중세문화를 성립시킴으로써 고대에서 중세로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는 고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특히 오랜 시간과 잦은 전쟁으로 전해지는 유물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명확한 모습이 밝혀지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역사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선행연구자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 전통 화장에 관한 연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반적인 화장 문화를 연구¹⁾, 조선시대 중심으로 화장 문화 연구²⁾, 중국과 비교 연구³⁾, 연지(胭脂)와 분(粉)에 관한 연구⁴⁾ 등이 있다.

-
- 1) 이경자·송민정,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991.
조진아, 고대 화장치레 문화를 통한 한국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 2000.
류지효, 한국여성의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
김은주, 한국 전통 화장풍속사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989.
류은주, 한국 고대 전통 피부관리 및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95.
박영은·김은자, 한국 전통 피부화장방법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06.
 - 2) 김주현·이상은, 조선시대 기생의 화장법에 관한 고찰,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009.
이정원·이정민, 조선시대 궁중가례와 화장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2007.
박수향,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모양과 화장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2008.
 - 3) 박경미, 한·중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0.
진형여·김희정, 조선 전기의 메이크업과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메이크업 비교,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009
박경민·박옥련, 조선시대와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 비교 고찰,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009.

고려시대만을 특징짓는 화장에 관한 연구는 복식(修飾)과 수식(修飾)의 연관성을 통해 일부분만 다루어졌을 뿐 전반에 걸친 문헌과 유물 조사에 의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려시대 화장의 특성과 주변국과의 교류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특징짓는 화장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려 후기는 전기·중기보다는 좀 더 많은 역사적 기록과 유물, 전기·중기에선 찾아 보기 힘든 회화 자료가 남아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문헌에 기록된 여성의 화장에 관한 내용과 유물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고려 시대 화장 문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고려시대는 오대(A.D.907-960), 요(A.D.916~1125), 금(A.D.1115~1234), 송(A.D.960~1279), 원(A.D.1206~1368), 명(A.D.1368~) 등 주변 국가와 상호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았던 급변하는 시기로 주변국과의 교류가 화장에 미친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고려시대의 화장 문화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던 고려 시대 여성의 화장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4) 정용희·이현옥, 전통화장문화에 나타난 연지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학회, 1998.
최정숙·라현숙, 한국 전통분 화장 문화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001.
정혜영·김경희,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분화장 문화 연구, 한복문화학회, 2010.
정복희, 연지화장 연구: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왕건(王建)이 신라 말에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고려를 세운 918년부터 이성계(李成桂)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1392년 공양왕(恭讓王)까지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된 연구 자료는 크게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문헌자료에는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해당되며 고려시대 서술된 문헌 자료의 분석은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자료이다. 또한 연구 논문 및 학회 학술지, 정기 간행물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물 자료는 고려시대 고분벽화, 불화, 인물화이며 그 중에서 형태가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여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화장 형태를 연구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송(宋), 원(元)대의 실존하는 고분 벽화, 인물화를 발췌하여 살펴보고 고려시대 유물과 비교 연구하여 주변국과의 교류로 인한 화장의 변화 요인을 연구하였다.

II. 역사적 배경

1. 고려시대의 여성

1)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혼인 풍속 및 그와 관련된 가족·친족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의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높았다. 여성은 남편이 없는 경우 아들이 있더라도 호주(戶主)가 될 수 있었다. 호적상의 기록도 남녀 차별 없이 자녀의 연령 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인이 결혼하면서 데려온 노비는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인의 소유로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노비를 각각 따로 호적에 올렸으며, 상속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아내의 본가로 귀속시켰다.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도 노비와 같은 원리로 소유·상속되었다. 여성은 가정의 제례(祭禮)를 남성보다 강력하게 주관하였으며,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제례(祭禮)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⁵⁾

고려시대의 혼인 풍속은 일반적으로 예서혼(預婿婚)과 남성이 장가가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었다. 이에 고려에서는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때문에 사위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음서(陰敍)나 공음전(功蔭田)의 상속 대상이 되었고 외손(外孫)에게도 가계 계승이 허용되었다.

예서혼(預婿婚)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5) 정태섭,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174.

이달에 脫朶兒가 제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는데 대신의 가문에서만 구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딸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서 서로 앞을 다투어 사위를 맞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대신의 집 두세 집을 적어 주어 脫朶兒 자신이 간택하게 하였다. 脫朶兒가 얼굴이 고운 자를 가린 결과 김련(金鍊)의 딸을 받아들여려고 하였는데 그 집에서는 이미 데릴사위를 데리고 있었으며 그 사위는 두려워서 집을 나가 버렸다. 김련은 그때 몽고에 입조하고 아직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그 집에서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예식을 하자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나라의 풍속에 나이가 어린 남자를 받아들여 자기 집에서 양육하여 성년이 되면 결혼시키는 것을 데릴사위라고 하였다.

是月 脫朶兒爲子求婦必於相門凡有女者懼競先納壻國家記宰相兩三家使自擇焉脫朶兒選姿色欲聘金鍊女其家已納預壻其壻懼而出鍊時入朝未還其家請待以成禮不聽國俗納年幼者養于家待年謂之預壻.

- 『고려사』 제27권 세가 제27 원종3 원종 신미 12년(1271) -

위의 기록에서 나이 어린 남자를 맞아 들여 여성쪽에서 양육하며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 혼인을 하는 예서혼(預婿婚)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 하나의 풍속으로 행하여졌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어 이루어진 혼인 제도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위가 처가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애를 낳고나면 시집으로 가는데 처가에서 지낸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처가살이가 고려시대 결혼 형태의 한 가지 유형이었던 만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인정권(武人政權)이 수립되고 몽골과의 전쟁을 겪은 후 원(元)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여성의 지위도 변화하였다. 무인정권기에는 출세를 위해 아내를 버리는 풍조가 생겨났고, 원이 지배한 이후에는 많은 여성들이 원에 공녀(貢女)로 징발되었다.⁶⁾

공녀의 요구는 원종 15년(1274) 3월에 원에 투항하여 군대에 차출된 남송인(南宋人)에게 아내를 얻어 주기 위해, 원에서 고려에 부녀 140명을 선택하여 보내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이에 고려는 결혼도감(結婚圖鑑)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여 부녀를 구해 원나라에 보냈다. 그 후 원나라의 계속되는 공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충렬왕 2년에는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이란 기구까지 설치하였다.⁷⁾ 공녀의 대상은 왕실의 여성에서부터 일반 서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 때 공녀로 징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혼(早婚)이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엔 여성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주관하였다. 고려는 금속 화폐보다 현물 화폐가 더 활발히 사용되었던 시기였는데, 여성은 주로 여공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갔다.

또한 남녀관계도 자유로웠다. 남녀가 함께 시냇가에서 혼욕(混浴)하는 모습을 묘사한 송나라 사신의 기록⁸⁾이 이를 잘 말해주며 남녀의 격리라는 것이 그리 중요시 되지 않아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은 조선시대의 풍습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⁹⁾ 고려시대 여성들은 자유로웠으며 여성의 지위가 남성 못지 않았다.

6) 한미라, 『한국인의 생활사』 (일진사, 2008), p.134.

7) 이정관, 『주제로 보는 한국사 2』 (고즈윈, 2005), p.58.

8) 『高麗圖經』 卷第二十三 雜俗二 雜俗二

舊史。載高麗。其俗皆潔淨。至今猶然。每笑中國人多垢膩。故晨起。必先沐浴而後出戶。夏月日再浴。多在溪流中。男女無別。悉委衣冠於岸。而沿流褻露。不以爲怪。洗濯衣服。凍浼絲麻。皆婦女從事。雖晝夜服勤。不敢告勞。鑿井汲水。多近川爲之。上作鹿盧。輸水於槽。槽形。頗如舟云。

9) 정태섭,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176.

2) 고려시대 기녀

기녀(妓女)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연회 등에서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고 웃음과 성(性)을 파는 특수 계층의 여성으로, ‘娼’의 개념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기녀란 외약이나 침선의 기술을 배우고 또는 가무(歌舞)를 배우고 익혀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에 봉사하던 여성을 일컫던 말이다. 즉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진 여성이라는 뜻으로 ‘기녀’, ‘기생’이라는 용어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직 여성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기녀들이 사대부나 군사들의 위안부로서의 구실을 맡게 됨에 따라 기녀의 개념도 의미상의 변화를 일으켜 기녀는 곧 ‘娼妓’라는 의미로 굳어지게 되었다.¹⁰⁾

고려시대의 기녀는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끝까지 저항한 후백제의 유민으로 유랑 생활을 하며 수렵과 유기제조를 하던 천민 ‘揚水尺’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자색(姿色)있는 여자가 기녀로 관청에 뽑히거나 스스로 기녀가 되어¹¹⁾ 가무를 익히게 하였다. 이것은 고려 여악(女樂)의 시초가 되기도 하며 여악으로서의 기녀를 양성하게 되면서 종래 유녀의 개념이었던 기녀가 왕실에 소속되어, 비로소 확실한 신분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려는 국초부터 중국의 기녀제도를 본받아 기녀를 제도화 시켰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중국 송나라 사신 유규(劉逵)·오식(吳栻)이 우리나라 사관(使館)에 머무르는 동안 연회 때 단장한 기녀가 출현하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고¹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에도 기녀의

10)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I』 (이화여대 출판부, 1972), p.518.

11) 정태섭,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219.

12)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又宋使臣劉逵 吳栻來聘在館宴次見鄉粧倡女召來上階指闕 衣色絲帶大裙漢 曰此皆三代之服不擬尙行 於此知今之婦人禮服蓋亦唐之舊歟

출현에 대한 기록¹³⁾이 있다.

교방(敎坊)은 주로 여악(女樂), 즉 여기(女伎)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록에는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¹⁴⁾로 부르며 궁궐 내에 교방(敎坊)을 설치하여 기녀의 가무(歌舞)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방(敎坊)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매우 엄격하였으며 기녀들은 문학과 예술적인 전문 교육을 받게 되었다. 기녀들이 공연할 때 악기 반주를 담당했던 것은 악공들이었는데, 기녀들은 가무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악기도 직접 연주하였다.

고려시대 기녀의 활동 양상은 대악서, 관현방 및 교방 등 왕실 음악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다. 기녀는 실제로 교방 및 지방 관청에 소속되어 주로 궁중의 의례나 사신의 접대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사적인 연회 자리에 적지 않게 참석하면서 궁중의 음악을 문인들 사이에 유포하고 문인들 내지 민간에서 유행하던 음악을 궁중에 유입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였다.

교방에 속한 기녀들은 대개 각 지방 소속 기녀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관비, 무당 가운데 빼어난 용모와 뛰어난 기예를 갖춘 여성들로 충원되었다.¹⁵⁾

여기(女伎)로 말하면 그것을 ‘하악(下樂)’이라고 하는데 도합 3등급이 있다. 대악사(大樂司)는 2백 60인으로 왕이 늘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관현방(管絃坊)은 1백 70인이요, 그 다음 경시사(京市司)는 3

13) 『高麗史節要』卷之十六 高宗安孝大王三 乙巳 三十二年(1245)
史臣曰，八坊廂者，國朝之大平盛事也，今蒙兵侵擾，竄入海島，社稷僅存，實君臣同憂，若涉淵冰之日也，而怡，乃盜竊國柄，妄矜侈大，略無畏忌，罪固不容誅矣

14) 『高麗史』 第71卷 志 第25 樂 2 用俗樂節度
文宗二十七年 二月 乙亥 敎坊奏 女弟子眞卿等十三人所傳踏沙行歌舞請用於燃燈會

15) 김수경(2008), 고려 말 악공·기녀의 위상과 음악사적 의의, 한국문화연구 15, p.15.

백여 인이다.¹⁶⁾

위의 『고려도경(高麗圖經)』 기록을 보면 당시 같은 기관인데도 기녀의 등급에 차별을 두어 3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인원은 700여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컸다.

16) 『高麗圖經』 卷第四十 同文 樂律

若女伎 則謂之下樂 凡三等 大樂司 二百六十人 王所常用 次管絃坊 一百七十人 次京市司 三百餘人

2. 송(宋)대 시대적 배경과 여성 화장의 특징

1) 고려와 송의 대외 관계

송(宋)과의 관계는 962년(고려 광종 3년) 이후부터 열린다. 광종이 광평 시랑 이흥우(李興祐)를 송에 보내어 교섭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¹⁷⁾ 광종 13년부터 시작하여 1174년까지 왕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양국은 이후 사절(使節)·예물 교환, 유학생 파견, 송상(宋商)의 출입 등으로 정치적·문화적 관계가 밀접하게 되었다. 송은 고려와의 정치관계 결성을 통해 거란의 배후를 견제하고 나아가 직접 거란과 화해를 모색하여 거란을 안정시킴으로써 남방 통일 전쟁을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고려도 송과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란으로부터 오는 군사적인 압력을 분산시키고 안정된 국제 환경 속에서 송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여 국내 정치 개혁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고려는 송과의 선진 문화 수입에 주목적을 두고 친선 관계를 맺어 교역이 활발하였다. 고려 광종부터 시작된 송과의 친선관계는 고려에 왕래한 송상의 총 인원수를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500여 명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며 그 횟수도 약 120회에 달하였다.¹⁸⁾

그 후 거란의 남침으로 약 40년간 송과의 국교가 중단되었지만 상인의 내왕은 여전하였고 문종 때 다시 정식 국교가 열리어 많은 양의 직물 교역도 이루어졌다. 그 후 송나라에서는 신종(神宗)이 즉위(1067)하면서 연려대요책(聯麗對遼策)이 대두되어 고려에 국교 재개를 요구하여 왔고 고려에서는 송나라의 문화를 깊이 흠모하였던 문종(文宗)이 즉위한 뒤 매

17) 『高麗史』第2卷 第2 光宗 壬戌 13年 (962)
十三年 冬遣廣評侍郎李興祐等如宋獻方物.

18) 김신, 『한국무역사』(도서출판 석정, 1991), p.96.

우 친송적(親宋的)이어서 1071년 양국은 약 반세기 동안 단절하였던 국교를 다시 이어갔다.

고려와 송나라는 국교의 단속(斷續)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무역(公私貿易)을 통해 막대한 수량의 문물을 교류하였는데, 특히 고려는 송나라의 서적을 수집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예종 11년(1116)에는 휘종(徽宗)이 대성아악(大晟雅樂)을 보내와 이로부터 우리의 음악은 종래의 향악·당악에 아악이 새로운 음악으로 첨가되어 국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¹⁹⁾ 요의 동태를 주시하며 국교관계를 유지한 고려와 송은 예종 15년(1115) 요군을 격파하고 여진이 금국(金國)을 세움으로써 다시 그 관계는 흔들리게 되었다.

금나라가 일어나자 송은 금과 연합해서 1125년 요를 멸망케 하였으나 2년 후에는 송나라 자신도 금에게 수도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를 전후해서 송은 고려에 자국의 위급을 알리고 금을 협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금에 사대정책(事大政策)을 결정한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고려도 주로 금나라와의 외교에 주력하게 되었고 고려와 송나라가 주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서로 많은 귀화인을 맞이하였다. 송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멸망해가는 과정에 많은 지식인과 경제인들이 어지러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고려로 망명해 왔다. 고려에서는 이들에게 벼슬을 주어 우대했는데 이 중에는 문학과 예술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도 많았다.²⁰⁾

19) 손태룡, 『한국음악논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p.468.

20)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의아침, 2007), p.193.

2) 송대 여성의 화장 문화

송(宋 960~1279)은 960년에 거란군의 침입을 막으러 가던 후주의 장수 조광윤이 군사를 돌려 후주의 어린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세운 나라이다.²¹⁾ 통상 1127년 금나라의 확장에 밀려 장강 이남으로 옮기기 전을 북송, 이후 임안(臨安)에 도읍을 옮긴 것을 남송이라고 불러 구분한다. 북송·남송 모두 합쳐 송(宋) 왕조라고도 한다. 수도는 개봉(開封), 남쪽으로 옮긴 후 실질적인 수도는 임안(臨安)이며 훗날 원(元)나라에게 멸망당한다.

송나라는 농업의 발달과 함께 상공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완화, 그리고 육로와 운화를 통한 전국적 규모의 유통망 형성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운하 교통망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발전했다. 대형 선박을 이용해 고려와 일본 및 아랍과 동남아 각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또한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 왔으며 통화량의 엄청난 증대로 세계 최초로 지폐와 어음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여유와 함께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민문화를 꽃피게 하였다.²²⁾ 서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송대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성행하여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사대부들의 복장이 검소해지고 여성들의 화장은 서민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단아한 화장을 하였다.

송대 여성의 분(粉) 화장은 익모초, 석고 분으로 만든 옥녀도화분(玉女桃花粉)을 사용하였으며 분의 색깔은 점점 다양해지고 향료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분은 연지(胭脂)와 함께 사용하였는데 송대에는 연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분과 병용하였다. 연지는 뺨에 약간 붉게 칠하였으며 당(唐)대에 유행하였던 짙게 칠한 윤곽이 선명한 눈 밑에 붉은 점들은 더

21) 나민수, “고려의 대외 교역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8권 1호, 2001, p.16.

22) 이은상, 『시와 그림으로 읽는 중국 역사』 (시공사, 2007), p.78.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를 살펴보면 입술에는 연지를 발라 붉은 입술 화장을 하였으며 작고 각이 없는 둥근 형태의 입술을 그렸다.

송대의 눈썹을 그리는 재료로 연묵이 발명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섬세하고 선명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림 3>의 관세음보살공양인견서의 눈썹은 두께는 두껍고 곡선의 형태로 그려졌으며 눈썹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게 묘사되어 있다.

3. 원(元)대 시대적 배경과 여성 화장의 특징

1) 고려와 원의 대외 관계

고려와 원의 교류는 1218년 고종 5년 몽고군과 동진군이 연합하여 거란군을 치기 위해 고려의 북방을 침입한데서 시작되었다. 고려도 그때 함께 거란을 공격하기 위하여 원과 강동성에 거란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원은 개경(開京)에 사신을 보내어 징기스칸의 조서를 전하고 정식으로 수호(修好)를 청하였는데 이것이 원과의 정식 국교의 시작이었다.²³⁾ 이후 해마다 공물을 요구해오던 원은 1225년 사신 著古與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중 국경지대에서 암살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원은 이를 빌미로 고려의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

고려와 원은 1218년부터 1367년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1231년 원 장수 撒禮塔의 침입을 시작으로 여덟 차례의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감행하며 고려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고종 46년(1259)에 줄기찬 항전 거듭 끝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고 이후 고려왕조는 약136년 간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자주국의 국왕으로서의 위상이 상실되게 되며 의식, 의복, 용어 등이 모두 제후국으로 격하 되고 말았다.²⁴⁾

이후 고려는 제후국으로서 국왕의 묘호(廟號)에는 조(祖)나 종(宗)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신에 왕(王)을 붙이도록 하였다. 충렬왕 원년(1275)에는 짐(朕)은 고(孤)로, 폐하(陛下)는 전하(殿下)로, 태자(太子)는 세자(世子)로 바뀌었고 의복에서 황포의 착용이 저지되는 등 종래 사용했던 용어나 관제(官制)가 격하되었다.

원의 복속기 초기인 1259년부터 1274년 원종 재위기간 동안 원종은 양국

23) 나민수, “고려의 대외교역에 관하여” 연세경제연구 제VIII권 제1호, 2001, p.42.

24) 박종기, 『오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0), p.269.

간의 우호를 위해 태자와 원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의 혼인을 제의하였고 원종 15년(1274)에 결혼이 이루어지며 뒤에 태자는 충렬왕이 되었다. 충렬왕을 시작으로 충선왕, 충숙왕, 충혜와,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7명의 원 공주가 고려왕과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원 공주가 출가하여 올 때마다 시중을 드는 많은 사속인(私屬人)을 데리고 왔다. 이에 따라 왕실은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결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 고려는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고려인으로서 원에 들어간 경우는 더욱 많았다. 원의 요구에 의해 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부류로는 禿魯花와 貢女이다. 독노화(禿魯花)란 인질의 뜻으로 원은 교섭을 진행시켜 갈 때 의례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를 독노화로 기용하였으며 그리하여 양국간에 화친관계가 확립되는 충렬왕 초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겨졌다.

공녀는 양국간의 큰 현안이었으며 그로인해 고려에서는 조혼의 폐습이 촉진되었다.²⁵⁾ 80년 동안에 걸쳐 원에 끌려간 공녀는 대개 원 황제·황후의 궁인, 시녀가 되었다. 그러나 원의 강요에 의해 고려 사람들이 원으로 들어간 경우 뿐 아니라 원나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학자, 승려의 교류 등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와 원과의 무역은 주로 원이 주도하는 관무역이 행하여졌다. 관무역이라고 하지만 원은 이른바 조공관계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고려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으며 노략에 가까운 형식으로 고려의 물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²⁶⁾ 여러 명목을 붙여서 고려에 대해 금, 은, 포, 곡물, 인삼 등을 요구하였다.

약 1세기 동안 문화적으로 문물과 인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져 고려

25)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1990), p.573.

26) 김신, 『한국무역사』 (도서출판 석정, 1991), p.96.

의 생활양식 등에 이른바 몽고풍의 유행을 일으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방문화의 교류에 힘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천문, 역법, 의학, 수학 등이 전래되었다.

2) 원대 여성의 화장 문화

원나라(元 1271~1368)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몽골의 지배를 받은 시기를 말한다. 원나라는 송나라를 멸망시킨 이민족의 정복 국가이며, 중국을 식민 지배하였다. 이후 명나라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물려주게 된다.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하였지만 한족화 되지는 않았으며, 지배층뿐 아니라 제도 및 문화에서도 기존 몽골 제국의 유목 국가적인 특성을 유지하였다. 1368년 원나라는 수도 대도를 명나라의 군대에 빼앗겨 순제(順帝)가 몽골 본토에 쫓김으로써 원나라의 중국지배는 끝이 났다.

몽골족에 의해 건립된 원은 그들 자신이 직접 창작 활동이나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피정복민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였다. 송대의 한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의 서아시아와 위구르를 비롯한 중앙 아시아 지역에 퍼져있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송의 문화와 접목 시켜 중국 대륙의 전통적인 사회구조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²⁷⁾

그러나 원대는 몽고인이 중국을 장악했지만 한족의 심미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사회·경제·정치 등 각 방면에서는 쇠약해졌다. 또 몽고족과 한족의 민족적 충돌은 송대 여성들의 전통과 화장 문화를 계승하지 못했고 당(唐)대 여성의 스타일과 풍격, 화장 형태 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당(唐)대의 화려한 연지 화장이 이민족의 화장 형태였고 연지의 사용 또한 몽고족이 거친 환경에서의 피부 보호를 위한 붉은 화장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송대의 화장형태보다 당대의 화장 형태가 몽골의 심미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²⁸⁾

<그림 4>와 <그림 5>에서 송대의 인물화에서는 보이지 않던 당(唐)대

27)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문덕사, 1991), p.101.

28) 박경미(2010), “한·중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문화 연구”(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p.60.

의 화전(花鈿)²⁹⁾이 다양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마에 원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눈썹 화장은 가늘고 길며, 평평한 형태이며 <그림 6>과 <그림 7>에서는 일자형의 눈썹이 묘사되어 있다. 눈썹 사이의 간격이 넓으며 곡선의 형태가 없어 원대 여성의 눈썹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눈썹은 가늘고 길게 그렸으며 일자형의 눈썹이 인물화에 대부분 보이고 있으나 <그림 4>의 적봉원보산출토벽화의 여성처럼 둥근 형태로 끝이 올라간 눈썹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또한 입술은 콧망울 보다 작게 그리고 윗입술은 각이 없는 원형의 입술이며 같은 비율로 아랫입술에도 붉은 연지를 바르고 있다.

29) 미간이나 뺨에 꽃, 달, 별 등의 무늬를 그려 넣는 화장으로 이마에 하는 것을 화전, 뺨에 하는 것을 엽전이라 한다.



<그림 1> 河南禹縣白沙宋墓出土壁畫
 (上海市戲曲學校,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社, 1984, p.119.)



<그림 2> 山西太原晉祠聖母殿彩塑
 (上海市戲曲學校,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社, 1984, p.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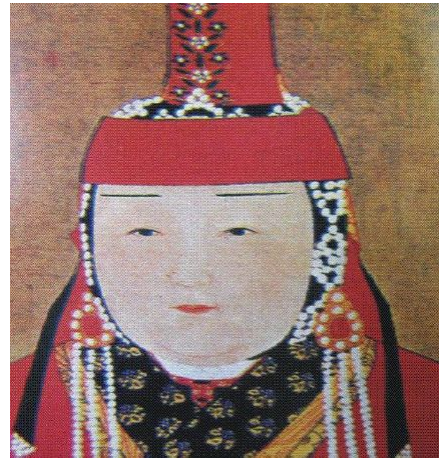
<그림 3> 觀世音菩薩像供養人絹畫
 (華梅, 中國服飾史, 耕春社, 1992, p.176)



<그림 4> 赤峯元寶山出土 壁畫
 (http://cafe.naver.com/corean200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98)



<그림 5> 山西省共洞廣勝寺
(上海市戲曲學校,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社, 1984, p.145.)



<그림 6>蒙古帝王家居畫
(上海市戲曲學校,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社, 1984, p.141.)



<그림 7> 山西永樂宮三清殿畫
(華梅, 中國服飾史, 耕春社,
1992, p.180.)

Ⅲ. 고려시대 여성 화장의 특성 및 분석

1. 문헌에 기록된 여성의 화장

과거 그 내용이 전해지는 사료가 부족하여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서류 및 문집류는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그 시대의 생활사, 미술사, 복식사, 미술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본 연구자는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을 사서류와 문집류의 문헌 자료에서 종합 분석하여 당시 화장을 시기별로 연구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은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문헌 조사를 하였으며 기록된 내용을 시기별 분류하였다.

화장에 관한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최항은 총명 침묵하고 말이 적고 판단을 잘 했다. 대대 선비로 내려 왔고 청렴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오랫동안 중요한 직위에 있었으나 타인의 재물은 털끝만한 것도 취하지 않았다. 금과 옥은 손에 대지도 않았고 그의 부녀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한 달에 쓸 만큼 봉락을 청구하였으므로 집안에는 약간의 저축도 없었다.

沈聰悟沈訥寡言善斷 世業儒以清儉持家久秉鈞一介不取於人手 不接金玉婦女不粉黛計月請俸家無甑石之儲

- 『고려사』 제93권 열전 제6 최항 -

현종 17년(1026)의 내용으로 ‘분대(粉黛)’의 기록이 보인다. ‘최항의 부인 얼굴 화장을 하지 않았다.’의 기록에서 화장을 분대(粉黛)라 표현하고 있다. 본래 분대(粉黛)는 연지(臙脂)와 백분(白粉), 백분(白粉)과 눈썹묵(黛)을 일컫는 말이지만 당시 화장품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며 화장의 의미를 대신하였다. 분대화장(粉黛化粧)은 분(粉)을 도포(塗布)한 듯이 하얗게 많이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하게 그리며 머릿기름은 반질거릴 정도로 많이 바르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진하거나 요염하게 화장한 여인들, 궁녀나 기녀 역시 분대라고 별칭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상류층 여성의 화장에 관한 표현으로 진한 화장을 의미하는 분대(粉黛)가 기록되어 있지만 신라시대에는 여성 화장에 관해 담粧(淡粧)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귀족 신분인 김유신의 누이 문희(文姬)와 춘추(春秋)의 일화³⁰⁾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문희(文姬)는 ‘얇은 화장과 산뜻한 옷차림에 빛나는 어여쁨이 눈부시다.’

淡粧輕服 光艷炤人

- 『삼국사기』, 권제6문 신라본기 제6 문무왕 상.-

30) 『三國史記』, 卷第六文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上.

文武王立 諱法敏 太宗王之元子 母金氏文明王后 蘇判舒玄之季女 庾信之妹也 其姊 夢登西兄 山頂坐 旋 流徧國內 覺與季言夢 季戲曰 “予願買兄此夢” 因與錦裙爲直 後數日 庾信與春秋公蹴鞠 因踐落春秋衣 紐 庾信曰 “吾家幸 近 請往綴紐” 因與俱住宅 置酒 從容喚寶姬 持針線來縫 其姊有故不進 其季進前縫 綴 淡粧輕服 光艷炤人 春秋見而悅之 乃請婚成禮 則 有娠生男 是謂法敏 妃慈儀王后 波珍滄善品之 女也 法敏姿表英特 聰明多智略 永徽初如唐 高宗授以太府 卿 太宗元年 以波珍滄爲兵部令 尋封爲太 子 顯慶五年 太宗與唐將蘇定方 平百濟 法敏從之 有大功 至是卽位

당시 상류층 여성의 화장을 요란하지 않고 얹게 한 화장을 지칭하는 담장(淡粧)이란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 얹은 화장을 지칭하는 담장(淡粧)이란 표현이 아닌 진하고 요란한 화장을 지칭하는 상반된 뜻을 의미하는 분대(粉黛)로 고려시대 문헌에 기록되면서 신라시대의 화장 경향이 고려시대에는 더욱 화려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종 17년의 분대(粉黛)에 관한 기록과는 달리 얹은 화장에 관한 기록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나타난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부인의 화장은 향유(香油)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을 바르
되 연지는 칠하지 아니하고 버드나무 가지와 같이 부드러운 눈썹
에 이마를 전부 가리지 않았다.

婦人之飾 不善塗澤 施粉無朱 柳眉半額

- 『고려도경』 제20권 부인, 귀부 -

이 기록은 원나라 영향기 이전이며 고려 여성이 분 화장은 하였지만 색조 화장인 불연지나 입술 연지는 바르지 않았으며 눈썹은 버드나무 가지와 같이 둥글게 그렸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분대(粉黛)와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고려시대 여성의 모습이 기록된 『고려도경(高麗圖經)』은 서궁(徐兢 1091-1153)이 고려에서 약 1개월 간 체류하며 고려를 경험하고 귀국 후 1년에 걸쳐 편찬한 것이다. 서궁이 고려를 방문한 것은 선화(宣和) 5년, 1123년의 일이며 선왕인 예종을 조문하고 신왕인 인종의 즉위를 축하하

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를 찾았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은 송나라 사람인 서공이 고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서공이 체류하는 동안 보고 들은 것 뿐 아니라, 송에 알려진 고려의 정보를 총망라해 기록하였다. 송나라 사람인 서공이 고려를 방문해 그 때의 견문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자료이며 사료가 많이 부족한 12세기 고려 전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뿐 아니라 외국인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송대인의 고려 인식에까지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약 1달이었기 때문에 고려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³¹⁾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기록된 고려 여성의 화장이 앞서 제시한 분대(粉黛)의 기록과 대조적인 것은 서공이 일시적인 방문으로 만난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공의 견해로 고려 여성의 화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³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여성의 화장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신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선남 선녀가 왕을 따라 문수(文殊)의 좋은 인연을 맺기를 원하오니, 여러 부녀들에게 불전에 올라와서 설법을 듣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였다. 이에 남녀가 혼잡하여 붐비고, 과부들 중에는 신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 자까지 있었다.

暉白王曰，善男女，願從上結文殊勝因，請許諸婦女上殿聽法，於

31) 김수연(2009), 고려도경 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 연구원, p.279.

32) 김수연, 앞의 책, p.270.

외국인이 바라보는 고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고려도경의 자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인식도 존재하며(길희성, “고려시대의 승계제도에 대하여-특히 고려도경을 중심으로” 위 논문은 고려도경에 묘사된 승계제도를 검토하였는데, 서공의 관찰은 정확성과 체계성을 결핍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중국인의 고려관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입장도 존재한다.

是，士女雜選寡婦，至有爲吨冶容者.

-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3 정미 16년(1367)-

여성들이 얼굴을 예쁘게 보이려고 단장하는 것을 ‘야용(冶容)’이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분대(粉黛)와 같이 진한 화장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야용(冶容)은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분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박색을 미인으로 치장한다든가 노인을 젊은이처럼 몰라보게 치장하는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말인 1367년에는 여성의 화장에 분대(粉黛)와 같이 야용(冶容)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려를 기록하고 있는 문헌인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보면 여성의 화장에 관한 기록만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9권 공민왕 4 계축 22년(1373)에 공민왕 스스로 여성의 진한 화장인 분대(粉黛)를 한 기록 있다.

항상 자신을 여자 모양으로 화장하였으며, 먼저 내비(內婢) 중 젊은 자를 방 안에 들여 보자기로 그 얼굴을 가리고, 홍륜의 무리를 불러서 이를 간음하게 하고는, 왕은 옆방에서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보다가, 마음이 동하면 곧 홍륜의 무리를 침실로 끌어들여 그 형상대로 하게 하였다.

常自粉黛爲婦人狀 先納內婢少者房中 取袱掩其面 召倫輩亂之 王從旁室 穴窗壁視之 及心歆動 卽引倫輩入臥內 使爲其狀

- 『고려사절요』 제29권 공민왕 4 계축 22년(1373) -

노국 공주가 죽고 난 후 공민왕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오는 반발 현상으로 관음증(觀音症), 난교(蘭交)와 동성애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의 쾌락을 탐닉하며 항상 자신 스스로 화장을 하였다.³³⁾ 공민왕의 쾌락적 성향으로 인한 화장이지만 남성의 화장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 외에 다른 시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라시대 화랑(花郎)은 여성이 주축이 된 원화(源花)였으나 첫 원화로 선발되었던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 서로 시샘하여 끝내 살인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점차 남성 중심의 화랑으로 변모하였다. 화랑의 조건은 미소년(美少年)으로 자신을 꾸미는 장식(粧飾)을 하였다.³⁴⁾

또한 조선시대 춘향가에 보면 이도령이 분세수(粉洗手)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³⁵⁾ 분세수(粉洗手)는 물에 갠 분을 얼굴에 발랐다가 다시 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피부를 곱고 희게 가꾸기 위해 흔히 분세수(粉洗手)를 하였다.

미의 추구라는 면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이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경자·송민경³⁶⁾은 우리나라의 전통 여성 화장이 남성에 의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남성의 화장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은 자신이 고귀한 신분임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 화장을 이용하였다.

33) 이한수, 『고려에 시집온 칭기즈칸의 딸들』 (김영사, 2006), p.181.

34)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576年)
三十七年春始奉源花初君臣病無以知人欲使類聚遊以觀其行義然後舉而用之遂簡美女二人一曰南毛一曰俊貞聚徒三百餘人二女爭媚相妬俊貞引南毛於私第強勸酒至醉曳而投河水以殺之俊貞伏誅徒人失和罷散其後更取美貌男子粧飾之名花郎以奉之徒衆雲集

35) 김동욱, 『춘향전사본선집 I』 (명지대학교, 1977), p.299.
"도령(道令)님 치장(治粧) 발작시면 신수 조흔 고은 얼굴 분세수(粉洗手) 정이 하고"

36) 이경자·송민경(1991),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그러나 공민왕의 분대(粉黛)화장은 신분의 상징적 방법으로 화장을 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성향으로 남색(男色)을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화장을 이용하고 있다.

고려 태조 중국의 제도를 본따서 궁궐안에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무(歌舞)를 관장하던 기관인 교방(敎坊)을 두어 관아의 계집종 가운데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단정한 여자들을 선발하여 기녀가 갖춰야할 여러 가지 교양과 몸매를 익히게 했으며 화장술도 가르쳤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止)에서 당시 기녀들의 화장법을 찾아볼 수 있다.

연지 분 곱게 바른 얼굴에
분별없는 붓끝으로 먹칠하면 어찌 하리!

恐將脂粉均粧面羞被狂毫抹汚來

- 『고려사』 제71권 지 제25 악2 당악 포구악-

공 넣기에 진 사람의 얼굴에 먹을 칠하는 것을 노래한 내용이다. 이 가사 중 “연지분 곱게 바른 얼굴” 부분은 포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연지분으로 화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가한 사람들이 한 연지분 화장은 미용적 화장이라기보다는 진 사람의 얼굴에 벌칙으로 칠한 먹칠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공연적 분장으로 볼 수 있다.

꽃가지 꺾어 들고 서로 보고 마주 서서
흥겹게 춤추며 부르는 노랫소리 절묘하구나
분 바른 얼굴 가만히 가리우고
겉눈으로 슬쩍 엿보는 그 눈썹이여!

折花枝兩相對舞袖翩翩歌聲妙掩粉面斜窺翠黛

- 『고려사』 제71권 지 제25 악2 당악 수룡음 만-

얼굴이 단정하고 마음씨 고상하고
눈썹은 길고 눈은 귀밑머리를 향하였으며
코는 오뚝, 입은 자그만하고 혀는 향기롭고 연하며
귀는 그중에서도 제일 붉고 윤태 나네
목은 백옥 같고 머리는 구름송이 같고 눈썹은 그린 듯하며
손은 봄날 죽순 같고 젖 가슴은 포근포근.
허리는 호리호리하고 발은 꼭 싸매 맵시 좋으니
기타는 더 묻지 않아도 알 만하다.
臉兒端正心兒峭俊眉兒長眼兒入鬢鼻兒隆隆口兒小舌兒香軟耳塚
兒就中紅潤 項如瓊玉髮如雲鬢眉如削手如春筍妳兒甘話腰兒細
脚兒去緊那些兒更休要問

- 『고려사』 제71권 지 제25 악2 당악 선패 영 -

고려시대 궁중에서 불리던 당악(唐樂)의 부분이며 기녀들에 의해 연회 때 마다 불리던 것이다. 기녀들의 분대화장(粉黛化粧)의 방법은 머리 기름을 윤기 있게 바르고, 먹으로 눈썹을 가다듬어 반달처럼 가늘게 그리며, 뺨은 복숭아처럼 입술은 앵두빛처럼 연지를 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굴은 되도록 하얗게 보이도록 분을 질게 발라 피부를 창백하게 했다.³⁷⁾

이상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37) 조진아, “고대 화장치레 문화를 통한 한국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경북논총4, 2000.

고려시대 사용되었던 화장(化粧)의 개념에 해당하는 말을 살펴보면 분대(粉黛), 야용(冶容), 단장(丹粧), 장면(粧面)이 사용되었다. 표현에 따른 의미는 약간씩 다른데 얼굴, 머리, 옷차림 등 몸단장에까지 곱게 꾸미는 것인 단장(丹粧)과 얼굴 화장만을 가리키는 장면(粧面), 야용(冶容)이 있다. 여기서 야용(冶容)은 억지로 아름답게 꾸며 화장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여성의 얼굴이 달라질 정도로 진한 화장을 의미하며 야용(冶容)과 같이 진한 화장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분대(粉黛)가 있다. 연지(臙脂)와 백분(白粉), 백분(白粉)과 눈썹먹(黛)을 각각 줄여서 일컫는 말이 바로 분대(粉黛)이다. 화장의 의미를 대신하기도 하였던 분대(粉黛)는 고려시대 기녀들의 진한 화장을 분대로 일컫어지면서 진하거나 요염하게 한 화장을 분대라고 별칭하게 된다.

이렇게 화장의 농담(濃淡)정도와 얼굴의 꾸밈 정도에 따라서, 장신구에 이르는 꾸밈이 더해졌을 때 분대(粉黛), 야용(冶容), 단장(丹粧)의 말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기녀들의 화장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 지분(脂粉), 장면(粧面), 분면(粉面), 취대(翠黛), 眉如削이다. 기녀들은 궁중의 의례나 사신의 접대 등 국가적인 행사에서 가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기녀들이 연회 때 부르던 당악(唐樂)부분에 기녀들의 화장을 살펴볼 수 있다.

지분(脂粉)은 연지와 백분을 의미하며 기녀들의 얼굴에 분을 바르고 연지화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면(粉面)은 기녀들이 화장시에 얼굴에 분을 발라 하얀 피부를 표현하였으며 眉如削은 눈썹을 뽑거나 깎아서 눈썹을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취대(翠黛)는 미인의 눈썹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高麗史』에 기록된 취대(翠黛)는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푸른 먹을 뜻하며 기녀의 눈썹 화장 형태를 알 수 있게 한다.

<표 1> 문헌에 기록된 여성의 화장

문헌	내용
고려사	분대(粉黛) : 제93권 열전(1026)/제132권 열전/제43권 세가 제43(1372) 지분(脂粉) : 제71권 포구악 장면(粧面) : 제 71권 포구악 분면(粉面) : 제 71권 수룡음만 취대(翠黛) : 제 71권 수룡음만 眉如削 : 제 71권 선과영 단장(丹粧) : 제 71권 오양선/무고
고려도경	분(粉) 주(朱) 유미(柳眉) : 제20권 부인(1123)
고려사절요	야용(冶容) : 제28권 공민왕3(1367) 분대(粉黛) : 제29권 공민왕4 (1373)

2. 유물에 묘사된 여성의 화장

1) 고분 벽화

(1) 고법리 고분 벽화

<그림 8>과 <그림 9>는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에 있는 송은(宋隱) 박익(朴翊 1332~1398)의 묘에 있는 벽화이다. 동벽과 서벽에 북쪽을 향하여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고려 말 생활 풍습 연구 등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동벽과 서벽의 여인들의 눈썹 형태는 가늘고 반달형의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서쪽 벽화에서 붉은 저고리를 착용한 여인은 붉은 입술 색에 연지 화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세기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복속기로 고법리 벽화 속 여인들의 화장에서 원나라 특유의 눈썹 화장인 가늘고 긴 곡선형의 눈썹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둔마리 고분 벽화

<그림 10>은 둔마리 고분 벽화의 주악천녀상(奏樂天女像)이다. 거창 둔마리 고분은 여러 장의 판석으로 3면에 벽을 두르고 회칠을 하였으며 그 안에 흑·녹·갈색으로 인물을 그린 벽화이다. 동측 벽에는 선녀 6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북측 벽에 글자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 서실의 서쪽 벽에는 여자 2명, 남자 1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 형상으로 보아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으로 움직임이 자유롭고 생기가 있다.³⁸⁾ 고려 말에 조성된 것으로 한 손에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피리를 부는 <그림 10>은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으로 입술 화장의 형태는 알아 볼 수 없으나 고려시대의 눈썹 화장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

38) 김상협(2007),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p.35.

현되어 있다. 눈은 가늘고 길게 표현되어 있고 눈썹은 꼬리 부분이 올라가 있고 가늘게 그려져 있다. 둔마리 벽화의 주악천녀상(奏樂天女像)의 눈썹은 원(元)대 유물인 적봉원보산 출토 벽화 <그림4>의 여인 눈썹과 같이 가늘고 길며 끝이 상승된 형태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 고려 여성들의 눈썹 화장에 원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불화

(1)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그림 11>은 왕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그려진 수월관음도이며 일본 대덕사(大德寺)에 소장되어 있다.

입술은 연지 화장으로 붉고 눈썹은 눈의 크기보다 길며 눈썹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게 그려졌다. 현재 일본 등에 소장되어 있는 수월관음도는 대부분 1323년 전후에 제작된 것이다. 원의 영향을 받던 시기로 원나라 여성의 화장이 고려 말 여성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수월관음도의 여성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시기적으로 원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 당연히 화장에도 가미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나라 여성의 눈썹은 가늘고 둥글게 그렸으며 눈썹 두께가 일정하다가 거이 끝부분에 가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입술은 붉게 연지 화장을 한다. 그러나 <그림 11> 불화 속 여성의 입술은 붉게 연지 화장은 하고 있지만 눈썹을 보면 앞쪽 눈썹은 두껍게 그려지다가 중간쯤부터 점점 얇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원나라 화장 문화가 고려 여성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 고려 여성들의 미용 풍속과 어우러져 고려 여성들의 화장법으로 융화되었음으로 보아야 한다.

(2)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

<그림 12>는 원 복속기인 충숙왕 10년(1323) 설풍이 그린 일본 지은원 소장 관경변상도이다. 공양을 드리고 있는 여인은 양쪽으로 똑같은 형태를 이루어 늘어뜨린 모양의 쌍수계(雙垂髻) 머리를 하고 있으며 고려 말 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머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입술은 콧망울의 크기보다 작게 그려졌으며 붉은색 연지를 바르고 있다. 눈썹은 가늘고 눈의 길이보다 길게 그려졌으며 눈썹 앞쪽부터 점점 상승되게 그려지다가 눈썹 끝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이다. 머리 모양과 화장의 방식이 원나라의 화장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 관경서분변상도(觀經序分變相圖)

<그림 13>은 일본 서복사에 소장되어 있는 관경서분변상도 속의 여인의 모습을 확대해 놓은 것이다. 한 여인은 길게 기른 머리를 뒤로 걸어 들렀으며 위쪽의 다른 여인은 머리 위에 검은 두건을 두르고 있다.

두 여인의 화장은 입술은 콧망울보다 작으며 각이 지지 않고 위·아래 입술이 모두 둥굴게 그려졌다. 연지 화장으로 입술과 뺨은 붉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눈썹의 형태는 아래쪽의 긴 머리 여성은 가늘고 길며 일자형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위쪽의 여성은 아래쪽 여성과 달리 눈썹 앞쪽부터 굵고 진하며 눈썹 끝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 있어 그림 속 두 여성의 눈썹이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늘고 일자형의 눈썹은 원나라 여성의 전형적인 눈썹의 형태이며 두껍고 아래로 처진 눈썹은 송나라 여성의 눈썹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 고려 초기에 영향을 준 송나라의 화장이 원나라의 영향기인 고려 말기 때까지도 존속되었다 할 것이다.

(4) 관경서분변상도(觀經序分變相圖)

충선왕 4년인 1312년 제작된 <그림 14>는 관경서분변상도이며 일본 대은사(大恩寺)에 소장되어 있다. 관경무량수경의 서론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이며 그림에서 위데휘 왕비가 석가삼존불을 향해 울면서 호소하는 장면³⁹⁾을 확대하였다.

왕비는 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눈썹은 가늘고 길며 날렵하게 묘사되어 있고 일자형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5)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

미륵하생경변상도인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은 1350년 충정왕 때 제작된 것으로 일본 친왕원(親王院)에 소장되어 있다.

미륵하생경변상도에는 여왕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려 말 여성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화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로 각각 크게 확대하여 놓았으며 미륵하생경변상도 속의 여인들은 모두 입술에 붉은 연지 화장과 버들잎 모양과 같이 둥글게 곡선으로 눈썹을 묘사하고 있다. 눈썹의 두께는 가늘며 눈썹 사이가 눈 사이의 간격보다 넓은 간격을 두고 그려졌다.

3) 인물화

(1)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그림 18>은 종묘 공민왕 신당에 있는 것으로 공민왕이 그린 것을 묘사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모습이다. 원나라 위왕(魏王)의 딸로

39) 이진영, “고려시대 여자 복식의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고헌논집 15권, 1994, p.322.

1349년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을 하였으며 공민왕 14년(1365)에 난산(難産)으로 죽었으며 그 뒤 공민왕은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⁴⁰⁾

고려의 원 복속기에는 충렬왕을 시작으로 5대에 걸쳐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려로 온 원나라 공주는 고려에 와서도 대개 몽골 양식의 생활을 하였으며 사속인(私屬人)을 몽골 사람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였다. 당시 고려의 왕실에 드나들 수 있었던 상류계층에 까지 수식과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31대 공민왕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원나라가 급격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곱 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을 실시하였고 특히 1352년에는 몽골식의 변발과 의복제도 등의 몽골 풍속을 폐지하였다.⁴¹⁾

원나라의 여성인 노국대장공주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특이한 모양의 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많은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눈은 작고 눈썹은 가늘고 길게 그려져 있다. 눈썹과의 간격은 눈 사이의 간격만큼 넓게 그려져 있다. 입술은 연지 화장을 한 형태가 남아 있다.

원나라 여성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인 <그림 18>은 당시 원나라 여성의 화장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고려 말 여성들의 화장과 원나라 여성의 화장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불화와 벽화 속 고려 여성들의 화장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노국대장공주의 모습에서 원나라 여성들이 하였던 불 전체에 연하게 칠한 연지 화장의 형태는 찾아 볼 수 없다.

40) 이은석, 『국사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6), p.21.

41) 비교민속학회, 『한·몽 민속 문화의 비교』 (민속원, 2002), p.63.

(2) 조반부인초상

<그림 19>는 고려 말엽 조반(趙半 1341~1401)의 부인 초상화이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으며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자세를 하고 있다. 홍색 선을 댄 녹색 저고리를 치마 겹으로 입고 있으며 앞 여밈도 없고 띠도 없다.

가장 먼저 조반 부인의 입술이 눈에 띄는데 불화, 벽화, 인물화의 여성들보다 훨씬 크게 입술이 그려져 있으며 선명하고 진한 붉은 색을 띄고 있다. 입술의 형태는 윗입술은 각이 있으며 아래 입술은 같은 비율로 오목하게 돌아간 곡선 형태로 그려졌다.

눈썹은 눈의 길이와 같게 그려져 있으며 뒤쪽으로 갈수록 색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원나라 여성의 가늘고 길며 평평하며 일자 형태의 눈썹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하연부인초상

<그림 20>은 고려 문신 이종오의 딸인 하연의 부인 초상화이다. 하연부인이 착용한 복식 전체는 실루엣이 매우 중후하며 높은 귀부인으로서의 품모가 느껴진다.

하연부인의 눈썹은 굵고 넓으며 색이 일정하다. 눈썹은 눈의 길이와 비슷하게 그려졌으며 눈썹 끝이 뾰족하게 끊어져 있다. 당시 고려에 영향을 준 원나라와 명나라의 눈썹은 버드나무 잎 같은 눈에 눈썹은 미간이 넓고 곡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하연부인의 눈썹은 원나라와 명나라의 눈썹보다는 송나라 여성들의 눈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송나라 여성들은 두께가 넓고 진한 형태의 눈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술은 연지 화장으로 붉으며 양 볼과 이마, 턱에 연지와 끈지가 동그랗

게 그려져 있다. 고려시대 유물 중에서 연지와 곤지의 형태는 하연부인의 초상화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하연부인의 곤지는 원나라 여성의 화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唐)대의 화전과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이마에 원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적봉원보산출토 벽화인 <그림 4>의 여인의 모습과 산서성공동광승사인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곤지는 이마 가운데 연지로 찍는 붉은 점을 의미하는데 조선시대에 가서 혼례식 때 신부의 이마에 곤지와 양 볼에 둥그란 형태의 연지화장을 하였다. 이마에 한 곤지 화장은 삼국시대, 통일 신라 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려 말 하연부인 초상화와 조선시대 혼례식 신부 화장에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볼에 둥그랗게 찍는 형태의 연지 화장은 삼국시대 여성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는 고구려 쌍영총 동벽 벽화 속 인물도의 여성이다. 양 뺨에 둥근 점을 찍은 듯 한 형태의 연지 화장을 하고 있다. <그림 22>는 수산리 고분 벽화 속의 고구려 여인으로 뺨에 작은 원형 모양으로 붉은 연지를 한 볼 화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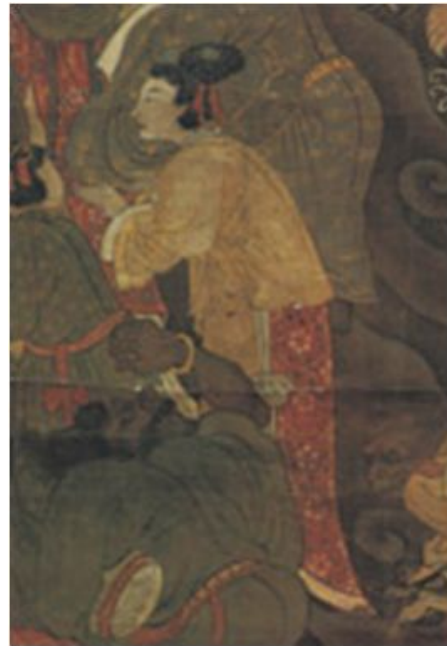
<그림 8> 고법리 고분 벽화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문화사, 2008, p.70.)



<그림 9> 고법리 고분 벽화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문화사, 2008, p.70.)



<그림 10> 둔마리 고분 벽화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문화사, 2008, p.68.)



<그림 11> 수월관음도
(임린, 한국 여인의 전통 머리 모양,
민속원, 2009, p.93.)



<그림 12> 관경변상도
 (한국의 미7, 중앙일보사, 1981, p.22.)



<그림 13> 관경서분변상도
 (한국의 미7, 중앙일보사, 1981, p.29.)



<그림 14> 관경서분변상도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도서출판 돌베개, 2009. p.96.)



<그림 15> 미륵하생경변상도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도서출판 돌베개, 2009. p.208.)



<그림 16> 미륵하생경변상도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도서출판 돌베개, 2009. p.208.)



<그림 17> 미륵하생경변상도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도서출판 돌베개, 2009. p.208.)



<그림 18>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박정자 외, 역사로 본 전통 머리, 광문각, 2010, p.43.)



<그림 19> 조반부인 초상
(정매자 외, 우리날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문화사, 2008, p.66.)



<그림 20> 하연부인 초상
(유효순·최해율, 복식문화사, 신광출판사, 2000, p.155.)



<그림 21> 쌍영총 동벽 인물도
(전호태, 고구려 고분 벽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63.)



<그림 22> 수산리 벽화 여인
(전호태, 고분 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1999, p.167.)

IV. 결 론

본 논문은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을 연구한 것이다.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을 문헌자료 및 유물자료의 분석과 주변국과의 교류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고려시대 문헌 자료인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여성의 화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표현에 따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분대(粉黛), 야용(冶容), 단장(丹粧), 장면(粧面)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중 진하거나 오염하게 한 화장인 분대(粉黛)표현이 가장 많이 고려시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 어휘들은 짙고 색채가 느껴지며 인위적인 느낌의 분대(粉黛)와 야용(冶容), 얼굴을 곱게 하고 머리, 옷맵시까지 매만져 꾸미는 단장(丹粧), 단순히 화장한 얼굴을 지칭하는 장면(粧面)으로 화장의 농담(濃淡)정도와 시각적인 느낌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고려시대의 문헌 기록들은 왕실과 상류층에 한정되어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어 서민층 여성의 화장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여성의 화장에 관한 기록도 기녀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기녀의 화장에 관한 기록은 지분(脂粉), 장면(粧面), 분면(粉面), 취대(翠黛), 眉如削이다. 기본적으로 기녀들의 화장은 분(粉)과 연지(臙脂)를 발랐으며 눈썹은 뽑거나 깎아서 다듬었으며 가늘게 그린 형태로 그렸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물 자료에 묘사된 여성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인 화장법을 분석

할 수 있었다. 고법리 고분 벽화에는 눈썹은 가늘고 길게 그려졌으며 둥글린 형태의 입술에 연지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원나라 여성들의 눈썹 화장 형태와 유사하였다. 관경변상도 속의 여성과 관경서분변상도(일본 대은사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 조반부인초상에서도 전형적인 원나라 여성의 눈썹 모양과 입술 연지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화장법이 고려시대 여성의 대표적인 화장법이었던 점을 알 수 있었다. 둔마리 고분 벽화 속의 그림은 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상승되어 있으며 이것은 원나라 적봉원보산출토 벽화 속 여성의 눈썹과 동일한 형태이다. 원나라 화장의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여성의 화장을 보여주고 있다.

수월관음도의 여성은 눈썹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게 그린 눈썹 형태를 보이며 원나라 화장 문화가 고려 여성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여성들의 미용 풍속과 어우러져 고려 여성들의 화장법으로 융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관경서분변상도에서는 두 명의 여성이 동시에 보이며 입술은 각이 없고 위·아래 입술이 모두 둥글게 그려졌다. 하지만 두 여인 모두 다른 눈썹의 형태를 보이며 또한 하연부인 초상에도 송나라 여성들이 그린 두께가 넓고 진한 형태의 눈썹 경향이 나타난다. 고려 초기에 영향을 준 송나라의 화장이 원나라의 영향기인 고려 말까지도 존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하연 부인의 초상화에는 양 뺨에 그린 연지와 이마에 그린 곤지의 화장이 남아 있는데 연지는 고구려 벽화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마에 그린 곤지는 원대 여성들이 이마에 원형으로 그린 화전과 같은 양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고려시대 여성 화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나라 화장 문화의 유입으로 고려 여성들의 화장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각이 없이

둥글게 그린 입술과 가늘고 둥글게 그린 눈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유물들이 원나라의 영향기에 있던 1300년 전후로 대부분 제작되었지만 묘사된 여성의 화장 중 송나라 여성의 화장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활발한 교류 속에서 화장 문화가 고려로 유입되었고 이것은 다시 고려의 화장 문화와 융합되어 양국간의 화장 문화의 유사성 보였다.

고려시대 초기의 유물이 부족했던 만큼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벽화 및 불화, 유물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료의 미진한 부분을 다소 보완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의 전통 화장 문화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본 연구가 우리나라 화장 문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서>

高麗史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단행본>

김동욱, 춘향전사본선집 I, 명지대학교, 1977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1990

김신, 한국무역사, 도서출판 석정, 1991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와아침, 2007

박종기, 오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0

이은상, 시와 그림으로 읽는 중국 역사, 시공사, 2007

이정란, 주제로 보는 한국사 2, 고즈원, 2005

이한수, 고려에 시집온 칭기즈칸의 딸들, 김영사, 2006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1991

정태섭,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손태룡, 한국음악논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I, 이화여대 출판부, 1972

한미라, 한국인의 생활사, 일진사, 2008

<학위 논문>

김상협, 2007,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경미, 2010, 한·중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문화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학술지>

김수경, 2008, 고려 말 악공·기녀의 위상과 음악사적 의의, 한국문화연구 제15호

김수연, 2009, 고려도경 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 연구원,

나민수, 2001, 고려의 대외 교역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8권 1호

이경자·송민경, 1991, 우리나라 전통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조진아, 2000, 고대 화장치레 문화를 통한 한국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경북논총 4

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Korean Traditional Make-up -focusing on Goryeo Age-

Jang, Yeon Ju

Major in Make-up & Special Make-up Effects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ke-up started from the natural desire to express the beauty but came to have a role as an instrument to represent the cultural pattern of a society in the historical progression that human beings construct, maintain and expand the society.

In general, the change of the culture is caused by the internal factors and the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factors are those that cause the cultural change inside the culture including the inventions and the discoveries. Meanwhile, the external factors are those that receive the influence of other societies' culture through the cultural

dispersion or interchange. The culture is a complex product formed not only by the 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but also the incessant interaction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with surrounding countries and natural environments.

Goryeo, who reunified Korean peninsular under the leadership of Wanggeon in the end of Silla, not only had the Medieval characteristics but also played a role as a bridge between Ancient and Modern Ages.

Focusing on Goryeo Age that lies in the connective position of Korean make-up culture, this paper reviews the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the interchange with surrounding countries who influenced Goryeo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 make-ups of the age.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 make-ups of Goryeo women, this study searched for the significance and the role of ginyeo (entertaining girl) who had much influence on the social status of Goryeo women and their make-up. Furthermore, it also surveyed the diplomatic relation with Song and Yuan Dynasties who were adjacent to Goryeo geographically and had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interactions incessantly with each other and the make-up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women.

In the main part, the make-ups and their meanings recorded in <History of Goryeo>, <Illustrations of Goryeo> and <Summarized History of Goryeo> were analyzed to show the make-up characteristics of Goryeo women. And to clarify the documentary

contents more concretely, the figures of women in tomb paintings, Buddhist paintings and portraits of Goryeo Age were analyzed and the features of their make-up were drawn out. By comparing the make-ups of women described in the artifacts of Song and Yuan Ages with those of Goryeo Age, it was analyzed how the former make-up of Goryeo women was changed through the imported cultures along with the changing process of make-up since then.

In Goryeo Age, the bundae(powdered face and drawn eyebrows) make-up was first introduced by ginyeos. They whitened their face with powder, arranged their brows thinly and colored their lips in red with yeonji. So, there came some words like bundae and yayong meaning heavy make-up in several documents. Yet, the pattern and the length of eyebrows as well as the lips yeonji were fairly influenced by Song and Yuan who had a close relation with Goryeo.

The study on the make-up of Goryeo women will be helpful in researching the make-up culture of each age through the continuous studies and reinterpretations of Korean traditional make-up culture by newly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 make-up culture.